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이 은 주

안동대학 가정학과

A Study on the Term 'Chölik'

Eun Joo Lee

Dept. of Home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88. 8. 9. 접수)

Abstract

The present paper mainly concerns with the four controversial issues: the exact period in which the Chölik was introduced into Korea,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honological and semantic aspects of the term itself.

First, upon the political and social ground, the Chölik was introduced at the later part of mid-Koryo dynasty.

Second, the original form of Chölik was modeled after the Mongolian 'pyök-jök-po', an outwear with pleated skirt.

Third, the term 'chölik' was derived from Mongolian 'terlig'. It came through China with the Chinese letters but the term maintained the Mongolian sound. The variety of the present pronunciations like 'chörik', 'chönik', 'chömni' and various notations in Chinese letters could be attributed to different phonological changes and analogy.

Last, the original meaning of chölik was somewhat similar to 'militia' or 'soldier', but the social function of the wearer gradually discolored to indicate only the costume for lower officials or the military uniform.

I. 서 론

철릭¹⁾은 조선조 건반에 걸쳐 여러 계층에게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어졌던 의복으로 上下連綴과 허디 아래의 襜積이라는 독특한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袍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외래의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탁연히 고려중기 이후 元(蒙古)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최근 철릭의 출토유물이 많이 보고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은 물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연구의 대부분은 철릭의 시대적인 형태변화와 색상, 의차등에 대한 복식사체의 연구 및 용도와 착용자 범위등에 대한 사회적 추정의 연구, 차츰 범위를 확대하여 철릭과 관련된 중국복식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혹 명칭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미해결점도 여전히 남기고 있는데 그 하나가 근본적인 유래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원의 質孫이 고려중기 이후에 착용되다가 明代에는 帖裏로 전래되어 조선조에 계속 착용되었다고 언급

되어 왔다.” 그러나 질손과 첩리 즉 첩릭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 ‘帖裏’라는 명칭이 한자어휘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몽고복식이라고 하기에 애매할 뿐 아니라 그 구성상의 특징조차 중국의 深衣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근원의 문제에 대한 혼란은 더욱 심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명칭이 ‘帖裏’·‘貼裡’ 등의 /첩-리/계통과 ‘天翼’·‘天益’·‘千翼’ 등의 /천-익/계통, ‘綴翼’·‘綴翼’ 등의 /철-익/계통, 그 외에도 ‘털릭’·‘철닉’·‘첩릭’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을 중심으로 첩릭의 원형과 전래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질손과의 관계도 규명해 보고자 하며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도 그 근원적인 유래와 관련시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언어학적 측면에서 형태음운과 의미의 분석을 시도하므로써 복식사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첩릭의 원형과 전래시기

첩릭의 원형은 몽고복식인 질손으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그 전래시기도 고려중기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자료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元代의 몽고어 문헌이나 조선조의 몽고어 계통의 문헌에서는 이 복식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漢語로서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조 초기에 明朝의 賜服服飾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帖裏는 明의 복식으로 인식되어 왔고 털릭과 帖裏, 또 질손과의 관계가 애매하여 그 근원 및 전래시기를 밝히는 문제는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첩릭이 복식자체는 물론이고 그 명칭까지도 몽고의 것이었음을 다음 다섯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려중기 이후의 元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첩릭의 전래를 유추할 수 있다. 「고려사」의 元王 13년에 세자 諱이 胡服으로 돌아왔다는 기록⁹⁾과 개체변발과 호복 착용의 기간이 백여년이나 된다는 기록⁴⁾에서 원의 복식제도가 우리의 복식제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실록에는 첩릭이 元代의 복식을 모방한 것이라는 기록⁵⁾과 胡人の 첩릭과 같은 제도라는 기록⁶⁾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첩릭의 기원은 역시 원의 복식에 있다고 하겠다.

둘째, 원의 호복과 첩릭과는 용도면에서 용복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몽고족의 생활습속이 평상시에는 유목생활을 하지만 언제라도 즉시 전투에 임할 수 있

는 차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인을 숭상한다는 사실⁷⁾로 보아도 호복은 평상복인 동시에 그들의 호전적 성격에 걸맞는 용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사」에는 세자가 부마가 되어 용복으로 오랫동안 집무했다는 기록과 왕이 入城할 때 용복을 입으면 백성이 해피하게 여길 것이라는 기록⁸⁾도 있다. 또 元朝에 이르러 그 前의 衣冠禮樂에 대한 華制를 바꿔 成을 쫓았다는 다른 기록⁹⁾에서도 용복은 곧 호복이고 원의 복식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용복은 고려중기 이후 그대로 조선조로 이어졌으리라고 본다. 더욱이 「고려사」의 편찬연대가 조선조 초기이므로 고려중후기의 용복 개념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樂學軌範」의 單帖裏와 그와 동일한 形制인 防衣가 다분히 용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조 초기의 실록에서도 군인의 복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明朝의 출토복식 중에 조선조 초기의 첩릭과 아주 흡사한 형태의 袍가 보이는데 明太祖의 열번째 아들인 朱棣의 것이라 하니¹⁰⁾ 明初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이것은 첩릭과 질손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라고도 생각되는 것인데 우선 「고려사」에 忠烈王이 元의 只孫宴에 참석했다는 기록¹¹⁾을 볼 수 있다. 只孫은 質孫과 같은 것으로 「元史語解」¹²⁾에도 ‘只孫’이 ‘質孫’·‘濟遜’·‘直孫’으로 표기되기도 했으며 그 의미는 顏色이라고 한다. 이 어휘는 원래 몽고어로서 그 발음이 [žisun]이기 때문에 同音異字의 한자표기가 다양하게 된 것이며 현재 우리에게서는 한자 ‘質孫’이라는 어휘가 익숙하여 /질-손/이라 하지만 원음은 [žisun]이라고 하겠다. 근대 몽고어에서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色, 용안, 외모, 도로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³⁾

한편, 「元史」¹⁴⁾에는 質孫이 漢語로는 一色服이라 하는데 內庭大宴에 입되 冬夏가 다른 의복이고 그렇다고 반듯이 정해 놓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勳戚·大臣·近侍에게 사역하며 아래로는 樂工·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하는데 그 정교함과 거친 정도로 상하계급을 구분하여 비록 같지는 않아도 이를 통틀어 質孫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실재 質孫의 形制를 알 수 없고 단지 一色服이라는 것만이 확실한데 一色服의 의미가 애매하여 두갈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周錫保¹⁵⁾의 견해처럼 의복과 冠의 색상이 동일하여 一色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질손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복색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一色服이라 할 수도 있다. 특히 「동방견문록」¹⁶⁾에 의하면

新年 및 大汗의 誕生日등 1년에 13회의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때마다 귀족에게는 정해진 의상이 하사되며 大汗과 귀족은 같은 의상으로 장식에만 차이를 둔다고 하는데 의복의 색상도 역시 같다고 한다. 그의 「고려사」 및 「원사」의 기록은 해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필자는 일단 후자의 견해에 비중을 두면서 두 견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元代에 상하계층에게 착용되었던 質孫은 明代에 이르러 하위관직인 校尉의 冠服으로만 착용되고 있어¹⁷⁾ 착용범위와 착용자가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質孫에 대해서 周錫保¹⁸⁾는 상하가 연결된 의복으로 상의는 비교적 밀착된 형태이고 하상 역시 짧고 허디에는 주름이 잡혀있어 기마에 편리한 용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質孫은 一色衣로서 明代의 裋撒(曳撒 또는 一撒)과 같은 옷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一色’과 ‘裋撒’·‘曳撒’·‘一撒’이 중국음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周錫保의 견해는 질손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質孫은 一色이고 一色은 曳撒이므로 質孫은 곧 曳撒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曳撒의 形制에 대해서 「明宮史」¹⁹⁾에는 뒤는 상하절단되지 않고 양옆은 트였는데 무(耳)가 있으며 앞은 상하절단되어 아래에는 馬面褶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고 조선조의 「孺溪隨錄」²⁰⁾에도 明의 ‘衣撒直領’이라는 기록이 보이니 衣撒은 曳撒과 동일복식임을 알 수 있고 그 제도는 앞은 첼릭과 같고 뒤는 직령과 같다고 하여 「明宮史」의 설명보다도 훨씬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다. 단 質孫과 曳撒과의 차이는 양옆의 트임에 있어, 質孫은 두루 막혔고 曳撒은 트임이 있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²¹⁾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質孫의 形制는 앞은 첼릭형이고 뒤는 직령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元史」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質孫이 한 形制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形制 중에서 후에 점차 한 形制로 정착되어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一色’·‘裋撒’·‘曳撒’·‘一撒’ 등의 어휘가 중국 한자음으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一色’에 대한 同音異字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헌 중에도 고려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朴通事」의 언해본²²⁾에 ‘帖裏’라는 어휘와 함께 別個의 복식으로 ‘曳撒’이라는 명칭이 있고 이를 ‘이삭당령’ 즉 ‘이삭직령’으로 언해하고 있으니 ‘이삭’이라는 것은 ‘一色’이라는 어휘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元代

의 「碎金」이라는 문헌에도 그 명칭이 보이니²³⁾ 明代 이전에 이미 있었던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로 첼릭과 質孫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質孫은 曳撒과 같은 것으로 앞은 첼릭형, 뒤는 직령형인 元代의 服飾이므로, 상하연결되어 앞뒤에 모두 벽적이 있는 첼릭과는 그 形制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벽적포류라는 공통점과 元代의 복식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첼릭은 역시 元代의 다양했던 벽적포류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첼릭이 몽고복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鄧石歌’에 보이는 ‘털릭’이라는 어휘가 몽고어임을 밝히는 것이다. ‘정석가’는 그 형식이나 어법, 내용, 情調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며 ‘털릭’이라는 어휘는 몽고어인 것으로 추측된다. ²⁴⁾ 李基文²⁵⁾ 역시 몽고가 元代에 남긴 우리 언어의 잔재중에 특히 군사와 관련된 어휘로 무관의 옷인 ‘털릭(帖裏)’을 포함시키면서 몽고 文語인 ‘terlig’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帖裏’ 즉 [터리]²⁶⁾가 몽고에는 ‘terlig’ 즉 [터릭]·[털릭]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의복자체가 몽고의 것일 뿐 아니라 어휘자체도 몽고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고 중국에는 音韻類의 문제²⁷⁾때문에 중성이 없어진 [터리]로 전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털릭’은 역시 몽고어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다섯가지 측면 즉 정치적 배경, 용복의 개념적 공통성, 출토복식에 의한 착용년대 추정, 질손의 형태와 첼릭의 형태비교에 의한 관련성, 첼릭의 명칭유래 등에 의해 첼릭이 고려중기 이후 원의 다양했던 襖褙袍類 중에서 전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원형은 元代 몽고족의 벽적포류에 있다고 하겠고 질손 역시 첼릭과는 별개의 복식으로 벽적포류 중의 하나라 하겠다.

Ⅲ. 첼릭의 원형 연구에 관한 문제점

앞 장에서 첼릭이 몽고의 벽적포류에 원형을 두고 있음을 밝혔으나 더 근본적인 원형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그 기원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벽적포 즉 첼릭형의 의복이 上代에 이미 존재했으리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²⁸⁾ 특히, 上下連衣라는 구조적 특징때문에 深衣에 기원을 두는 경우도 있다.²⁹⁾ 심의

는 중국 역대를 통하여 禮服의 근본이 되었던 대표적인 漢族의 복식으로, 우리나라의 사대부 복식으로도 애용되었던 바 그 의복의 각 부위마다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유학자들의 적지 않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한 심의였기 때문에 철릭이 형태상 유사한 까닭으로 조선조의 사대부에게 널리 착용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더 깊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기원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大明集禮」에 나오는 腰線襖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³⁰도 있는데 이 견해 역시 근본적인 원형에 대한 접근은 아니라고 하겠다. 조선조의 기록 중에는 철릭이 袴褶이라는 기록³¹이 적지 않은데 그 袴褶은 元의 복식으로 설명되고 있다.³² 또 明代의 문헌인 「觚不觚錄」³³에는 袴褶은 兪복으로 소매는 짧거나 없으며 옷 중간이 잘려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이 있는데 소매가 길면 曳撒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장에서 曳撒과 철릭은 그 형제가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조선조 문헌에서는 또 철릭이 袴褶이라고 하고 明代의 문헌에서는 소매길이의 차이는 있어도 袴褶과 曳撒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 그 실명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밝히기에 앞서 서로 동일한 형제는 아닐지라도 벽적포류라는 것은 일치하고 있다. 「明宮史」에서도 세부적인 주름의 形制 차이 때문에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서 벽적포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철릭과 袴褶이 같다는 形制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兪복이라는 기능이 같다고 하는 견해³⁴도 있기는 하지만 明代 및 조선조의 여러 문헌에 원대 이후의 복식으로 袴褶의 용도와 형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니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또 周錫保처럼 明代의 袴褶과 北朝의 袴褶이 명칭은 같으나 서로 다른 別個의 복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³⁵ 필자는 철릭이나 袴褶이 元代的의 것이라고는 해도 그 이전에 이미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拙稿³⁶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견해와는 달리 北朝의 袴褶이 철릭형 복식의 원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철릭의 근원적인 원형에 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IV. '철릭'의 언어학적 분석

앞장에서 이미 철릭의 전래시기와 원형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또 북

식을 논함에 있어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명칭이 중요한데 특히 동일한 복식에 대해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즉 복식의 명칭이란 형태, 용도, 문양, 형제, 색채, 봉제상태, 길이 등에 의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외래어인 경우에는 발음에 의한 표기상 여러 취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표기의 명칭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상의 문제점을 지닌 대표적인 복식이 철릭이라고 생각된다.

철릭은 '戍服', '防衣', '細褶兒'·'板褶兒'³⁷, '帖裏', '天翼', '綴翼', '털릭', '털링',³⁸ '첼닉', '첸닉' 등의 명칭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帖裏' 이하에 열거되어 있는 명칭에 초점을 맞춰서 고찰 하되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외래어의 취음표기라는 측면에서 그 명칭의 원형을 찾고 다양한 표기성립의 원인, 분화과정등을 살펴 본 후 그 의미에 대해서도 추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V. 1. 명칭의 형태음운론적 분석

명칭에 대한 몇가지 기존견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 네가지의 주장들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天翼'과 '綴翼'은 '帖裏'의 誤字라고 보는 견해³⁹ 둘째, 帖裏와 天翼의 기본형제는 같으나 용도에 따라 中衣로는 '帖裏'라 표기하였고 表衣로는 '天翼'이라 표기하여 용도에 의해 명칭이 분화되었다는 견해,⁴⁰ 셋째, 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 견해로 西域의 '튜닉(tunic)'이 발음상 유사한 한자어휘로 '天翼' 즉 [tianyi]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⁴¹ 마지막으로 조선조 초기에는 '帖裏'·'貼裡'로 중후기에는 '天益'·'帖裏'로 후기에는 '天翼'·'첼릭' 등으로 기록되어 시대에 따른 명칭의 변화라고 보는 견해⁴²가 있다.

필자는 위의 네가지 견해 중에 세번째, 네번째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번째 견해는 철릭의 원형과 관계된 견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추정이 막연하기 때문에 후일의 연구로 미루고자 하며 네번째 견해처럼 철릭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점차 다양해져 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릭에 대한 명칭표기를 한글표기와 한자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글표기는 '털릭' '털링' '첼릭' '첸닉' 등으로 열거될 수 있고 한자표기는 '帖裏' '貼裡' '天翼' '天益' '千翼' '綴翼' '綴翼' 등으로 열거될 수 있다. 한글표기는 '털릭'에서의 단계적인 음운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어 口傳에 의한 '발음적 명칭'⁴³이라

고 할 수 있고 한편 한자표기는 기록을 위한 '표기적 명칭'⁴⁴⁾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음으로는 /철-리/계통, /철-익/계통, /철-익/계통의 세 계통이 있다.

조선조 초기의 표기인 '帖裏'와 '털릭'은 音的 實體 즉 발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帖裏'는 그 당시 우리 한자음으로 /털-리/가 되나 그러한 한글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帖裏'라고 표기하면서도 계속 [털릭]이라 하였음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⁴⁵⁾ 또 '帖裏'의 중국발음은 [터리]라고 밝히고 있어 우리의 '털릭'에서 중성이 발음되지 않은 형태를 뒤하고 있다. [털릭]이 몽고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를 앞장에서 밝힌 바 있고 또 近代蒙古語에도 'terlig'⁴⁶⁾ 'terlik'이라는 어휘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元代에 우리나라에는 [털릭]으로 전래되었고 중국에는 漢字音韻尾의 문제로 중성이 탈락된 [터리]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어서 그 발음에 유사한 '帖裏'라는 어휘를 造字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元朝秘史' 본문 중 몽고음[terigün-e]라는 것을 한자로 '帖里兀攬'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⁴⁷⁾ 이는 어휘는 달라도 [terlig]과 유사한 [terig]을 '帖里'로 표기한 것이니 [terlig] 즉 [털릭]은 의복의 명칭으로 '리' 대신 '裏'를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선조 초기의 '帖裏'라는 명칭은 몽고어인 'terlig'을 音寫한 중국한자어휘로, [터리]라 발음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문자인 '帖裏'를 차용하면서도 발음은 몽고의 원음 그대로인 [털릭]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에서도 지적했듯이 표기와 발음사이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점점을 찾기 위한 시도가 있게 되어 우리 음에 의한 여러 한자표기의 명칭이 성립하게 되었다. 먼저, 最古의 한글표기는 15세기말의 「樂章歌詞」 중 「鄴石歌」에 보이는 '털릭'이라 생각되는데 16세기 초 「老乞大諺解」에는 '털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털'의 /르/이 /ㄴ/으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음운변화라는 것은 어떤 불안정한 요인이 개입되어 음운체계의 불균형을 가져 온 때 규형을 회복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는데⁴⁸⁾ 보편·철원적인 변동의 경우에는 원형에서 다른 변이형태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그 역으로 변형된 음운에서 원형을 찾아 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역유추라고 하는데⁴⁹⁾ '털릭'이 '털릭'으로 변화한 것은 제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ㄴ/의 /르/되기 역유추로 설명된다. 그 다음 단계는 /르/머리소리규칙에 의해 '털릭'이 '털익'으로 역유추되는 단

계를 하겠다. 즉 '털릭'은 다시 '털익'의 원형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한글표기는 군현상으로 찾을 수는 없었으나 한자표기인 '天贊'과 '天益'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天贊'이라는 표기는 양조 2년(1725)에 처음 보이지만 형성 시기는 더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와는 달리 「方言類釋」(1778)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발음상으로는 여전히 [털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 단계는 구개음화의 단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략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구개음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⁵⁰⁾ 그러나 1778년의 「방언유석」에도 철릭의 경우는 구개음화가 되지 않은 '털릭'으로 나타나므로 더 늦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며 구개음화된 /철-익/은 '天贊' '天益'이 되어 '天贊'이라는 표기를 추가시켰다고 보는데 '天贊'이 '天益'보다 늦게 생긴 명칭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天'이 구개음화되기 전 [털]이던 때에 '天'은 [철]으로 발음하여 '天'과는 달랐으므로 구개음화 이후 '天'과 '天'이 비로소 같은 발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철-익/이 다시 단모음화되어 /철익/이 되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철-익/계통의 명칭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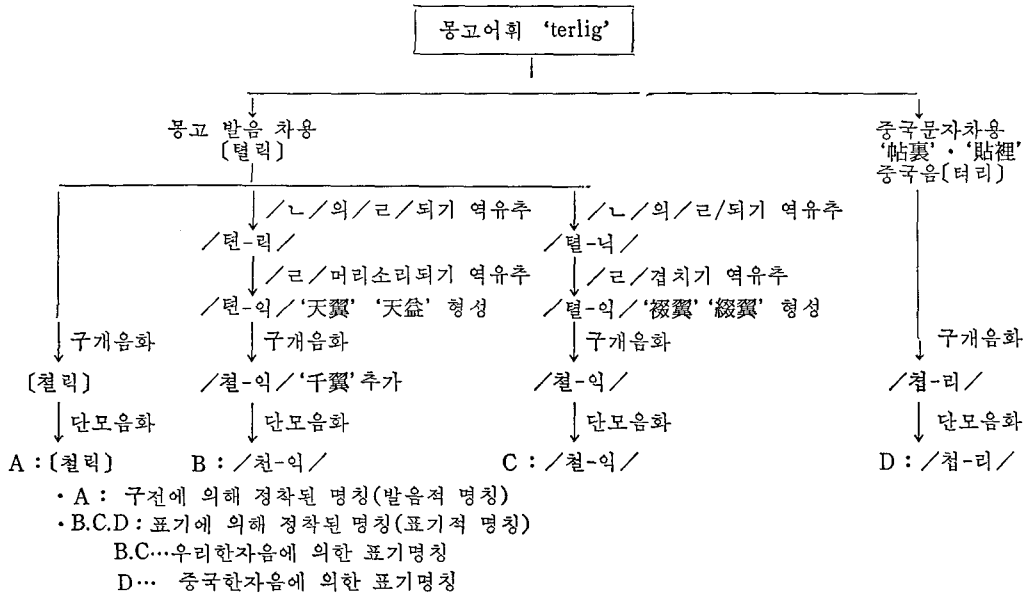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는 별개의 음운변화 간격이 있으니 이는 /철-익/계통의 명칭으로 [털릭]이 /르/겹치기의 역유추에 의해 /털-익/이라는 원형으로 생각되면서 '綴贊' '綴贊'으로 표기되는 경우라 하겠다. /털-익/역시 구개음화단계를 거쳐 /철-익/으로, 다시 단모음화단계를 거쳐 /철-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몽고음인[terlig]은 고려중기 이후에 [털릭]으로 전래되었으나 문자는 중국한자음 [터리]에 해당되는 '帖裏'가 전래되어 /철-리/계통 명칭이 생겼다. 우리나라 한자음과 중국의 한자음이 다르므로 우리음의 한자표기를 갖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글표는 /르/의 /ㄴ/되기 역유추와 /르/머리소리규칙의 역유추로 원형이던 원형을 갖게 되어 '天贊' '天益'을 성립시켰고 다시 구개음화과정에서 '天贊'을 추가시켰던 것인데 그 시기적 차이는 영조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갈래로는 /르/겹치기의 역유추에 의해 '綴贊' '綴贊'의 표기를 가능케 했고 다시 구개음화, 단모음화 단계를 거쳐 현재의 /철-익/계통, /철-익/계통의 한자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몽고음의 차용이었기 때문에 [털릭]에서 단순히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의 음운변화과정만을 거쳐 '털릭'이라는 명칭도 존재하게 된 것인데 특히 이 명칭은 문자

표기로 보다는 口傳에 의한 발음으로 정착된 명칭이므로 ‘털릭’에서 가장 적은 변화를 거친 명칭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털릭]이라는 몽고음에서 우리 한자음 표기

의 원형을 찾고자 했던 노력과 그 후의 음운변화에 의해 다양한 명칭이 성립된 것이니 그 과정과 갈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V. 2. 명칭의 의미론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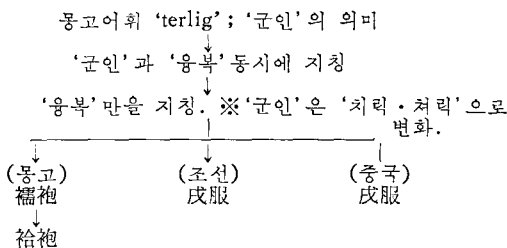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철릭의 명칭은 다양하다. 특히 한자표기에 의해 성립된 명칭에는 민간어원적(folk etymology) 의미도 부여된다. 한자로 외래음을 표기하는 경우 原音과 유사한 造字法을 쓰게 되는데 이 때 同音의 여러 문자 중에 그 대상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 것을 택하여 적절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은 후대에 민간통속 어원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⁵³⁾ 철릭의 명칭들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우선 ‘帖裏’라는 명칭에는 옛날에 帽袍 속에 입었다 하여 ‘안에 입는다’는 의미에서 생성되었다는 견해⁵⁴⁾도 있을 수 있고 또 ‘千翼’이라는 명칭은 주름이 많아서 생긴 명칭이라는 주장⁵⁵⁾도 가능하다. 또 추측하건대 ‘天翼’은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와 같은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과 관련된 의미는 한자어휘가 생성될 때 그런 듯하게 붙여진 민간어원적 의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몽고어휘인 ‘terlig’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두가지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天翼

이 古代 東北아시아의 胡族이 입었던 일반적인 튜닉계 통으로, 튜닉을 한자표기하여 생긴 명칭이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즉 의미는 원래 튜닉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天翼은 ‘털릭’을 우리 한자음으로 원형을 찾기 위한 시도과정 중에 생성된 명칭이므로 시기적으로 앞서는 ‘털릭’이 튜닉의 취음어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몽고문헌이나 명대 및 조선초의 몽고어휘 문헌에는 ‘terlig’ ‘털릭’ 등의 복식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한어서적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인 두번째 가설은 원래 몽고에서는 복식의 어휘가 아니었으나 중국인들이 복식명칭으로 잘못 사용하였거나 의미를 바꿔 사용함으로써 몽고나 우리나라에서도 바뀐 의미의 복식명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어휘의 의미도 음운형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King⁵⁶⁾이 지적했듯이 한 어휘가 과도기를 거쳐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변화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철릭’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면⁵⁷⁾에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문이 지적했듯이 ‘털릭’이 군사관계의 어휘라고 볼 때 군인과 관계가 있었던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몽고어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단언은 할 수 없

지만 『蒙語類解』⁵⁸⁾ (1790)에 ‘兵丁’ 즉 군사들 ‘치릭·쳐릭’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고 몽고어 대사전에는 ‘čerik’, ‘čirik’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몽고인들이 항시 군인으로서의 차비를 갖추고 있어 부장은 용복의 의미가 컸던 것이고 처음에는 착용자의 신분과 관련된 어휘에서 차차 착용자 신분의 의미는 소멸되고 그 의복을 지칭하는 어휘로 의미가 바뀌었다고 하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몽고어사전에서 ‘terlik’은 솜을 넣은 옷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 『Mongol Costumes』에 기록되어 있는 ‘terlig’ 5벌에는 솜을 넣은 옷은 아니며 그 형태, 용도, 착용자도 모두 다른 袍類로 단지 색상과 줌으로 분제되어 있다는 것만이 일치한다. 그 중 첼릭처럼 상하연철되고 허리에 벽적이 있는 것도 있기는 하나 것은 S자형으로 만주복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선조에서는 전반적으로 용복의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고 明에서는 역시 용복의 의미를 지닌 복장으로 前期에는 황제의 편복으로도 착용된 바 있으나 거의 하급관리와 내신의 복장으로 사용되어 의미도 그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한 어휘가 비록 始原은 같았다고 할지라도 적용된 사회의 성격에 따라 시대와 더불어 의미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몽고어의 ‘terlig’처럼 사전적 의미와 실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시간적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또 각 사회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원형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의미지칭에 대한 필자의 추론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V. 결 론

본 논문은 첼릭의 원형과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질손과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다양한 명칭에 대해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첼릭의 원형과 전래시기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즉 첫

째, 정치적 배경. 둘째, 용복의 개념적 공통성. 셋째, 출토복식에 의한 시기적 추정. 넷째, 첼릭과 질손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 첼릭의 명칭유래에 의해 살펴 보았다. 즉 첼릭은 역시 몽고의 벽적포류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이며 질손도 벽적포류의 하나로 첼릭과는 그 形制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첼릭은 前後 허리부위에 벽적이 있으나 질손은 뒤는 직령과 같고 앞에만 첼릭처럼 벽적이 있는 것이었다.

첼릭의 다양한 명칭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에서 그 어원은 몽고어휘인 ‘terlig’임을 알 수 있었고 복식과 함께 명칭을 차용하면서 좁은 몽고음 그대로 차용하였고 표기는 중국의 한자 ‘帖裏’를 차용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 ‘帖裏’는 중국에서 몽고의 ‘terlig’을 취급표기한 것으로 중국음운의 자음운미의 문제때문에 몽고 발음과 차이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帖裏’라는 한자표기에도 불구하고 몽고어휘의 발음대로 [털릭]이라 발음되었고 이처럼 중국한자음과 우리 한자음이 일치하지 않아 명칭상의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점차 몽고의 전래음을 우리 한자음으로 원형을 찾아 표기하고자 하는 시도와 음운변화가 있게 되었으니 그 한갈래가 /ㄴ/의 /ㄹ/되기 역유추. /ㄹ/머리소리되기 역유추. 구개음화, 단모음화 과정을 거친 /천-익/계통으로 ‘天翼’·‘天益’·‘千翼’의 명칭이 생성된 것이고 두번째 갈래는 /ㄴ/의 /ㄹ/되기 역유추. /ㄹ/겹치기의 역유추. 구개음화. 단모음화 과정을 거친 /천-익/계통으로 ‘綴翼’·‘綴翼’을 형성시켰다. 한편 [털릭]에서 발음상 구전되면서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의 과정을 거쳐 ‘첼릭’·‘첼릭’등으로 변화된 갈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몽고어 ‘terlig’에 대한 의미분석은 중세 몽고어 기록이나 明朝·朝鮮朝의 몽고어에 관한 문헌 기록에서 찾지 못하여 추론에 의해 가설을 설정한 바 원래 몽고에서 ‘군사·군인’은 의미하는 어휘였던 것이 중국 漢人들에게 전래되면서 사회적 기능면에서 의미변화가 일어나 원래 착용자 신분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의복만을 지칭하는 ‘용복’의 의미로 바뀌어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용복’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몽고에서는 다시 의미가 변하여 襦袍, 裕袍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역의 ‘튜닉’과의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도 지적하면서 후일의 연구를 기대한다.

주 석

1) 현재 이 복식에 대한 명칭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 철릭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 다른 명칭보다 '철릭'에 가깝다고 생각되기에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는 특히 명칭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기에 먼저 명칭의 표기규약을 설정하고자 한다.

표 기	지시대상
철릭	의복
'철릭'	어휘
/철-릭/	음운표시
{철릭}	음성표시

- 2)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 32』, 博物館新聞. 164호 (1985).
- 3) 『高麗史』, 世家. 卷第二十七. 元宗 三. '國人見世子辨髮胡服 皆歎息'
- 4) 전계서, 志. 卷 第二十六, 輿服一, '事元以來開剃辨髮 襲胡服殆將百年'
- 5) 『宣祖實錄』, 卷三十. '馬上戎衣 其制自異予所服者曾效楊元之服'
- 6) 『孝宗實錄』 八年. 卷三十六. '我國帖裡衣初典胡人帖裡同共制'
- 7) 孫福坤, 『蒙古簡史新編』 香港: 自由出版社. 3(民國 40年)
- 8) 『高麗史』 列傳. 卷十九. 李承休, '承休以爲世子爲駙馬戎服將事已久'
- 9) 權鼈. 『海東雜錄』, 『風俗關係資料撮要. (下)』, 朝鮮總督府刊 1348(昭和十九年)
- 10) 王宇清, 『龍袍』 國版 5-10.
- 11) 『高麗史』, 世家 卷第三十一, 忠烈王 四 二十六年六月 '王至上都謁帝于樓殿仍獻方物帝大設只孫宴'
- 12) 『元史語解』 卷二十四, 名物.
- 13) 日本陸軍省編, 『蒙古語大辭典(上)』 1513(1982).
- 14) 『元史』 卷七十八. 輿服一. '質孫漢言一色服也, 內庭大宴則服之. 冬夏之服不同 然無定制, 凡勳威大臣待賜則服之. 下至於樂工衛士, 皆有其服 精粗之制, 上下之別, 雖不同, 總謂之質孫云.'
- 1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 374(1986).
- 16) マルコ ポーロ, 『東方見聞錄』, 青木富太郎 譯. 東京: 社會思想社, 86-87, (1983).
- 17) 『明史』 卷六十七. 志 第四十三, 輿服三.
- 18) 周錫保. 전계서. 375 (1986).
- 19) 明呂彬, 『明宮史』 卷三. 內臣服佩 '其製後襟不斷而兩傍有襪前襟兩裁而下有馬面褶兩傍有耳'
- 20) 柳馨遠, 『儒溪隨錄』 卷二十五. '武僅容出拳 穿衣撤直領 其制前貼裡後如直領 左右兩旁各有襪積'
- 21) 周錫保, 전계서, 375(1986).
- 22) 『朴滬事諺解』 上. 二十五.
- 23)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香港分館. 370(1981).
- 24) 梁柱東, 『麗謠箋注』, 서울: 乙酉文化社, 334-344 (1947).
- 25)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塔出版社, 100-101 (1983).
- 26) 『譯語類解』 上. 服飾條, 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90(1974).
- 27) 1. 버나드 칼그렌, 『古代漢語音韻學概要』, 崔玲愛譯. 서울: 민음사, 47(1985).
2. 허웅 『국어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238(1986).
- 28) 1.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289 (1986).
2. 劉頌玉, 『古代東西洋上衣比較研究』 服飾. 第 3 號, 35(1979).
- 29) 1. 丁若鏞, 『雅言覺非』 金鍾權 역주, 一志社, 147 (1979).
2. 任明美, 『介胃』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 3 卷 1 號. 45(1979).
- 30)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 3』, 博物館新聞 123호 (1981. 4)
- 31) 1. 『增補文獻備考』 東國文化社 (1971).
2. 李肯翊, 『燃黎室記述』 別集 卷十三.
- 32) 李漢,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08, 102(1985).
- 33) 王世貞, 『觚不觚錄』 二十七. '袴褶戎服也其短袖或無袖而衣中斷其下有橫摺而下復豎摺之若袖長則爲曳撒'
- 34) 姜淳弟, 『帖裏小考』, 성심여자대학 논문집 12집, 142(1981).
- 35) 周錫保, 전계서, 402-403, (1986).
- 36) 拙稿, 『中國의 袴褶制』, 안동대학논문집, 제 7 집, 815-829, (1985).
- 37) 崔世珍, 『老乞大諺解』,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22-123, (1980). 細摺兒는 '마늬주름턴릭'으로 板摺兒는 '너븐주름턴릭'으로 연해하고 있다.

- 38) 劉昌惇,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713 (1979).
- 39) 丁若鏞, 전계서, 147(1979).
- 40) 1. 姜淳弟, 전계서, 177(1981).
2.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서울: 一志社, 176 (1985).
- 41) 劉頌玉, '朝鮮時代出土服飾을 통해 본 男子袍 研究' 大東文化研究, 第18輯. 160(1984).
- 42) 高福男, 전계서. 287(1986).
- 43) '발음적 명칭'이란 필자가 임의로 명명한 것으로 '털릭'이 구전되면서 음운변화에 의해 형성된 명칭을 말하며 본고에서 열거되지 않는 명칭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기적 명칭' 역시 필자가 명명한 것으로 특히 한자표기를 위해 사용했던 명칭을 말한다.
- 44) 1. 「方言類釋」, 서울: 弘文閣, 영인본. 130(1985).
2. 「古今釋林」卷二十四.
- 45) Hansen, H.H. 「Mongol Costumes」, Nordisk Forlag, KOBENHAVN, 13, 18, 20, 23, 26 (1950).
- 46) 日本陸軍省編纂, 전계서. 1206(1982).
- 47) 崔鶴根, 「滿蒙學叢書(四)」, 서울: 民俗苑. 430 (1983).
- 48)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서울: 塔出版社, 21 (1987).
- 49) 허웅, 「국어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323(1986).
- 50) 南廣祐, 「韓國語의 發音研究 (I)」 서울: 一潮閣, 125(1987).
- 51) 郊居瑣編, 「風俗關係資料撮要(下)」, 朝鮮總督府, 1288(昭和十九年)
- 52) 崔世珍, 「訓蒙字會」
- 53) 小林高四郎, 「增補 東西文化交流史」, 東京: 西田書店, 17(1984).
- 54) 「純祖實錄」卷三十四, '而古則服之於帽袍之裏故又謂之帖裏'
- 55) 郊居瑣編, 「風俗關係資料撮要(下)」 '其襪積許多故以爲千翼'
- 56) King, Robert D.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Hall, 117(1969).
- 57) 千時權, 金宗澤, 「國語意味論」 螢雲出版社, 242 (1984).
- 58) 「蒙語類解」, 서울대 고전간행회편 영인본, 69 (1971).